

9회 : 종합토론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종합토론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2007년 6월 8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참석자

- 도정일 (문학평론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 복거일 (소설가, 문화미래포럼 대표)
- 김명인 (문학평론가, <황해문화> 주간)
- 조정환 (문학평론가, <실천문학> 편집위원)
- 심진경 (문학평론가, <문예중앙> 편집위원)
- 손석춘 (언론인, 사회)

9회 : 종합토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손석춘 (사회)



저는 오늘 토론의 중계자 노릇을 맡도록 하겠다. 2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짧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지난 20년에 대한 평가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의 주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정환 선생께서 총 8회 동안의 토론회를 일별해 보신다면?

조정환



이번 토론회에서 제출된 발제문들을 보니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도정일 선생님은 시민 사회 문제를 언급하셨고 진중권 선생은 농경/산업/정보사회의 주체성이 구술과 다른 근대의 신화와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주체개념을 제시했다. 임상수 감독은 예제이적인 글이었지만, 진행되어 온 권력의 횡포를 이야기하면

서 기억의 복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거일 선생은 인류적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민족이란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김명인은 자유주의에 대해 반대하면서, 민중의 복원을 주장했고, 심진경은 소설의 개인주의와 문학 속의 독특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의 발제자인 이진경 선생은 소수자론을 언급했다. 조금씩 색깔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해 대척점에서 비판을 했다.

김명인



개인적으로는, 요즘 말로는 신체에 각인된 반응 중에 하나일 텐데, 나는 내가 사는 세계를 결핍으로 보고, 늘 나쁘게 보는 습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운동 없이 현재 세계를 놔둔다면 새로운 형태의 디스토피아 될 것 같다.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상상도 자유롭지만, 절망도 새롭게 한다.

명확하게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70년대 후반 오일쇼크 이후로부터 세계의 활로가 신자유주의라는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그 파워가 서서히 커져서 지금은 피할 수 없는 대전제가 되었다. 일단은 신자유주의는 구성원들의 숨을 막히게 한다.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면 되는데, 신자유주의는 그 나머지 시간을 놀게 하지 않는다. 국가, 경제,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보다 전면적이고, 강도가 심해진 압박이 있다. 이 고

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역시 세계체제가 신자유주의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복거일



사회변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2,30년 동안 진화론에 의한 관찰이 전 세계의 지적 풍토를 바꿔 놓았다. 인류가 진화생물학의 성과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인간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도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세계적 산업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진화론은 본질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삶에서 나왔고, 진화했다. 유전자 문화, 공진화가 유전학 문화가 유전자를 압도하는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있다. 삶은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 진화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석춘

그런 방법론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복거일

나는 자유주의자고, 진화론자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자유주의라는 이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인 시장이 잘 돌아가야, 즉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야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손석춘

김명인 선생은 신자유주의가 불안과 공포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고 복거일 선생님은 이 자연스런 흐름을 강하게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진경



김명인 선생의 '견딜 수 없는 고통' 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수사로 들린다. 그렇지만 복거일 선생의 방법론적인 접근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민주화를 운운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러한 절망의 가장 커다란 국면은, '더 이상 바깥이 없다'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내면의 문제들까지도 신자유주의에 의해 지배받는다 고 생각하면 더욱 절망적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모든 것들이 교환가치로 전락했다. 원을 찢고 나갈 수 없다. 그럼에도 절망이나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개인적으로 고민을 가져가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정일



사람들이 만약에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과거의 투사이기도 하고, 현재를 투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빠른 변화를 경험했다. 20년 전의 사건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문민정부를 거쳐 왔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개발경제와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살펴보자면, 과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국사회를 통해 본 전 세계의 지배세력이 신자유주의라는, 다르게 말하면 시장주의는 정치세력의 개편이 아니면서 정치변화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90년대 초, 문민정부 3대의 전개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를 말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논리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밀어붙일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김명인 선생이 고통이라고 말했던 것.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는 생존이라는 한 단어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변하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구호들은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해 살라고 벼랑으로 몰았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문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IMF 때의 생존의 문제는 강력했다. 노숙자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공포의 문화가 번졌다. 사회의 밀림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장점도 있겠지만, 인간성의 희생을 염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민주화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의 양극화를 복거일 선생처럼 자연의 법칙으로 돌리면, 양극화가 더 심화된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위기를 초래하고,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자기 대비를 하지 않는 사회는 바보사회다. 한국사회를 보라. 타인과 사는 것이 공동체다. 한국사회처럼 이렇게 빠르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이 없다. 윤리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뛰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속도의 시대(고속열차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한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전망을 가지지 못한 사회는 의미가 없다.

심진경

도정일 선생님께서 문민정부의 시대가 공포의 시대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 같다. 시장의 다양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비판적인 입장이, 제가 고생을 덜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사회를 더욱 설명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닌가.

도정일

입시를 압둔 학생들의 불안을 보자. 그것이 공포 불안이며 우리 사회의 축약도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큰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정환

도정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신자유주의의 일면이 지나친 과장이라서 새로운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극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다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묶어 비판하면 한편으로는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있지도 않은 환상적인 주체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복거일 선생님은 실증주의적으로 사회를 본다. 개인 대 개인의 투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었다. 그런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볼 때 위험하게 흐를 수 있다. 정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일종의 정보의 지배가 이미 가진 자에 의해서 독점된다고 해석된다.

냉소주의와 한편으로는 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접점을 찾아 보면 거시적 관점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미시적인 삶과 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통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도정일, 김명인 두 분에 동의한다. 신자유주의

가 추방해버린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동일시가 제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 추방 속에는 도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이 생존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생존을 넘어서는 가치의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생존과 현재의 생존을 동일시할 수 없다.

복거일

시장은 단일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체가 시장이다. 시장이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은 명사의 모순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은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초공간, 초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다.

김명인

시장에는 주체라는 것이 있다. 주체에는 주체의 성격이 있다.

복거일

경제의 주체들에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쳐도 그것을 독재라고 보기는 힘들다. 명령 경제가 독재를 한다. 정부기구를 기획한 그들이다. 누가 지시하는 것이 없는 사회에서 독재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개념을 위한 개념일 뿐이다.

도정일

복거일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장은 나도 좋아하는 시장이다. 시장이라는 곳만큼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은 없다. 인간이 과거로부터 즐겨온 시장의 모습이다. 마켓 플레이스, 장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대문자 M으로 말해지는 추상적 시장이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세계를 만들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주체가 시장이다. 시장 전체주의와 정치 전체주의에는 차이점이 있다. 시장 전체주의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하다. 정치 전체주의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더 무서운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트렌드, 그리고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시장의 논리다. 한 사회를 가장 지배적으로 지배하는 가치가 시장논리일 때, 그것을 시장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과 언론의 자유를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조정환

도정일 선생님의 시장론은 너무 윤리적이고 문화적이다. 시장을 해석하는데 추상화 시켜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시장이 존립할 수 있는 조건, 시장에 나와 사람이 몸을 팔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생산수단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배후조종을 감춤으로 인해 시장을 조종하는 권력을 비판하거나 문화적으로 해석할 때 싸워야 할 대상이 사라진다.

손석춘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논의해 보자.

김명인

서구의 경우에도 소수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68혁명 이후에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근대를 넘어 서고자 하는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현황에서도 발견된다. 특

히 90년대 문학에서 개인이 발견되는 사례가 그렇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간과되거나 억압되어온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세대론적으로는 진중권 선생의 말처럼 정보적 신체로 볼 수도 있고 일반론적으로 각성한 개인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대적 기획들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민중론을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 이 민중에는 과거 70년대의 민중론이 아니라 계층론까지 포함된다. 나는 다중, 소수자, 서벌턴(하위자) 대신 민중을 거론하고 싶다. 이는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민중이지 낡은 개념으로서의 민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정일

6월 항쟁은 시민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국민은 언제나 협소한 국가주의적 관계에 예속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의 등을 떠미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유의 주체는 누구일까. 나는 6월 항쟁이 낳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민은 포악할 정도로 개인화되어 있는 이기적 개인이 아니다. 공동체에 믿음을 줄 수 있고,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지난 20년 간 우리 사회가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등장을 보았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갈 만한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그것을 상상해야 한다.

조정환

도정일 선생님은 87년에서 모델을 찾는다. 김명인 선생님은 그 보다 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모델을 찾는다. 하지만 저는 시민의 개념은 국가 속에 포섭됐다고 생각한다. 60년의 탄압 때문에 좌파가 부당하게 해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접근이다. 그런 방식으로 현재를 볼 수는 없다. 이미 역사 속에서 소멸되었고, 아



무리 되돌리고 싶다 해도 현대 세계에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자유주의의 탄생과 다중의 탄생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68혁명도 동일하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포섭되면서, 혁명의 주체들이 떠올랐다.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렇고, 87년의 노동자 투쟁도 그러하듯이 자율적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섰던 것이다. 주체들의 다원화, 이질화, 혼종화. 즉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들이 새로운 주체가 되고 있다.

김명인

대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주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조정환 선생의 다중이라는 개념은 오늘의 신자유주의 현실을 결과적으로 수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이나 운동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조정환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공통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특이성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써, 다중의 방향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 과거의 방향성에 대한 정의와는 다르다. 자신의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로부터 도주하려고 하는 것이 특이성이다. 전래적인 개념을 빌어 대안성을 제시한다면, 사회주의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 커뮤니즘과 달리 코문적 삶, 탈주한 삶, 신체적 영역에 있어서 접속을 통해 삶을 바뀌어나가는 방식을 고려한다.

복거일

아담 스미스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질서가 추구된다고 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질서가 생기고,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원시적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세계는 이렇게 되었다. 사회가 개인을 제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오히려 크다.

김명인

사회는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을 방해한다. 주체가 소비되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선택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성찰을 불가능하게 한다.

조정환

'소비자로서의 나', 혹은 '개인으로서의 나' 라는 정의가 있다. 그게 실제적인 정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을 포함하고는 있다. 젊은 세대들에 있는 새로운 경향성을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비하는 나라고 하는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소비하는 나와 저만큼 소비하는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영어공용론을 보면 주체에 대한 엄청난 호명이 있다. 사실 영어사용자의 권위를 엄청나게 키워주고, 미국의 신민화가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분이 복거일 선생님이다. 오히려 거대 주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복거일 선생님의 입장인데, 이에 대하여 대항 주체를 형성하지는 주장을 낡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신들, 무장해제하라'는 말로 들린다.

복거일

영어공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가 세계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율이 높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언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영어를 도입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정일

주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주체 논의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책임의 영역에 가면 누구도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고 발을 뺄 수 없는 것이다. 이 주체는 윤리적 주체다. 이 윤리적 주체가 정치적 주체의 바탕이다. 어느 누구도 현대의 정체성으로 살 수 없다. 다중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다중이라는 것은 현대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한 규정일 뿐, 정치적 주체인 개인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다. 정치적 주체로 규정할 수 있는 개인은 하

나일 뿐이다. 민중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정치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손석춘

정성들여 발제문을 집필하셔서 저마다 맡으신 시간을 알차게 채워 주시고,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들께, 주최측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